



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「개인투자용 국채」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

- '26.9월부터 7개 증권사,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·20년물 구입 가능

재정경제부는 '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(DC형, 개인형 IRP)에서 「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」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,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재정경제부는 ‘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*’를 구성·운영하여 안정적인 국채 판매,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·운영,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다.

* 제1차 협의체 개최(2.12일) : 재경부 국고정책관(주재), 한국예탁결제원, 9개 금융기관 등

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「개인투자용 국채」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. 개인투자자들은 금년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*에서 「개인투자용 국채」를 구입할 수 있으며,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.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「개인투자용 국채」 청약, 배정,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.

* (증권) KB, NH투자, 미래에셋, 삼성, 신영, 키움, 한국투자 / (은행) 농협, 신한

정부는 작년 12월초 「개인투자용 국채」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.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, 국민들에게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. 끝으로 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「개인투자용 국채」 제도를 지속 발전·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고실 국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	최나은 (red6559@korea.kr)